



### 세계불교단체 연합회 결성

경우스님·달라이라마 공동의장

경우스님(부산 대각사 조실)이 9월22~23일 인도 다람살라에서 티벳 승려 달라이라마를 만나 유엔내 '세계불교단체연합회'를 결성키로 합의하고 서명한 후의 모습을 담고 있다. 경우스님과 달라이라마가 공동의장을 맡아 추진되는 '세계불교단체연합회'는 세계의 불교국가, 불교

단체들이 총 망라될 예정이며 향후 세계평화와 티벳의 독립 등 불교국가들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회담후 경우스님(사진 오른쪽)은 달라이라마에게 108염주와 불덕사중 도량본을, 달라이라마는 경우스님에게 티벳 전통 석가모니불상을 선물하며 우의를 다졌다.



부산 자비사주지 삼중스님(사진 왼쪽)과 일본 남장원주지 하야시스님이 자매결연증서를 교환하고 있다.

### "국경없는 재소자 교화 편다"

자비사, 日 남장원과 결연협력 다짐

부산 자비사(주지 삼중)와 일본 후쿠오카 남장원(주지 林 龍乘)은 9월27일 자매결연을 맺고 국경없는 교도소 교화 사업을 다짐하고 기념식수를 했다. 이날 결연식에는 한국신도 7백여명과 일본신도 1천여명이 참석했다. 자비사 주지 삼중스님은 결연식에서 "두 사찰이 국경을 초월해 재소자 교화에 협력한다면 밝은 세상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장원 주지 하야시스님은 "한국의 자비사와 결연을 맺은 것은 남장원이 펼치는 교화사업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임을 믿는다"고 말했다. 후쿠오카 남장원은 전장 41m 높이 11m의 대형 부처님 열반상이 있는 유명사찰로 20여년전부터 미얀마 네팔 등지의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과 의약품 등을 제공해 왔으며 재소자 교화사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 대입 수능 D-50...참선으로 재충전

“자 학생불자 여러분! 눈을 지그시 감고 마음에 남아 있는 집착과 욕심을 떨쳐 버리시다.”

지난 9월27일 오후3시 대입 수능50일 참선수행법회가 봉행되고 있는 총정사(주지 도운스님) 대웅전. 청보리학생회(회장 이병곤) 50여명이 감재영법사(동덕여고 교사)의 지도로 가부좌를 틀고 참선에 들었다. 5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 혼음이 아까운 고3 수험생이지만 심리적 불안과 동요를 떨쳐 버리고자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매달 한번씩 법회에 참석한다는 이병곤(중앙고3)군은 “질에 와서 참선하고 가면 마음이 편해져 재충전이 된다”고 말했다. 17년동안 수험생들을 지도해온 감재영법사는 “마음을 비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학생들이 결과가 좋았다”고 충고했다.

김주일 기자

### 교차로

와 올바른 언어생활지도 및 부산지역 국어학 연구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대구 원효불교대학 개교  
중앙 불교회관 보리원 원장스님은 9일 대구 서구 내당4동에 소재한 원효불교대학을 개교한다.

선학원서 도요선학강좌  
인환 동국대 명예교수 스님은 11일 오후3시 선학원 중앙선원 대웅전에서 열리는 추계 도요선학강좌에서 강의한다.

직영 반야여행사 개원  
현근 조계사 주지스님은 2일 조계사 직영 반야여행사 개원식을 가졌다. 반야여행사는 불교성지 순례 전문 여행사로 일반여행업 무도 취급한다. (02)730-0020

은평대상 봉사상 수상  
성운 삼천사(은평구 진관외동) 주지는 1일 은평대상 봉사상을 수상했다. 스님은 인덕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며 전국 교도소 수감자 위로방문, 책보내기, 아프리카 구호기금 기탁활동 등을 펼친 공로로 선정됐다.

‘국제 불교 통일’ 포럼 개최  
법해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스님은 15일 온양그랜드 파크호텔에서 창립 12주

년 기념 ‘국제 불교 통일문제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동대 대학원 총학생회장  
헤지 상계동 도안사 주지는 동국대 불교대학원 제12대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돼 9월29일 총학생회 출범식 및 신입생 환영회를 가졌다.

‘한민족어디로...’ 강연  
정재각 前 동국대총장은 9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공개홀 강좌에서 ‘한민족어디로’를 주제로 강연한다. (02)703-0108

동대 인문학 겸임교수 맡아  
한병삼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최근 동국대 인문학부 겸임교수로 임명됐다.

신장기증 조해봉씨  
병해는 박대석(43)씨에게 신장을 기증한 조해봉(30·광고업)씨는 자신의 아픈 곳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혜자가 건강해 나고 물으며 환하게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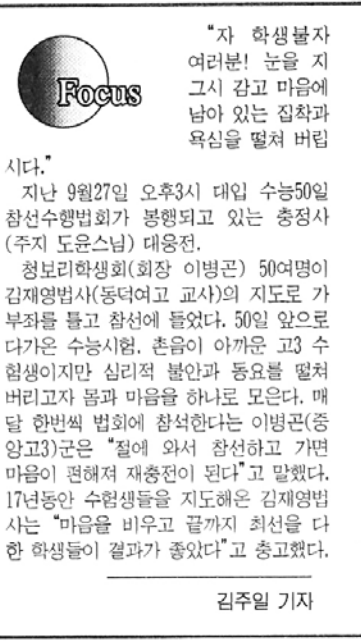
“수술로 인해 내가 아픈 것보다는 나로 인해 다른사람이 생명을 찾았다는 것이 기쁘다. 18년간 만성신부전증으로 투

대입 수능 D-50...참선으로 재충전

“자 학생불자 여러분! 눈을 지그시 감고 마음에 남아 있는 집착과 욕심을 떨쳐 버리시다.”

지난 9월27일 오후3시 대입 수능50일 참선수행법회가 봉행되고 있는 총정사(주지 도운스님) 대웅전. 청보리학생회(회장 이병곤) 50여명이 감재영법사(동덕여고 교사)의 지도로 가부좌를 틀고 참선에 들었다. 5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 혼음이 아까운 고3 수험생이지만 심리적 불안과 동요를 떨쳐 버리고자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매달 한번씩 법회에 참석한다는 이병곤(중앙고3)군은 “질에 와서 참선하고 가면 마음이 편해져 재충전이 된다”고 말했다. 17년동안 수험생들을 지도해온 감재영법사는 “마음을 비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학생들이 결과가 좋았다”고 충고했다.

김주일 기자



### “생활불교·주는불교 전환해야”

전국신행단체대표 수련회 여는 송재건 회장

데 근본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29일 열린 운영회의에서 최종 일정을 확정된 송회장은 이와 함께 교단의 일원으로서의 신도회역할 찾기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말만 사부대중이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수련대회에서 송단과 재가, 각각 신도회와 중앙신도회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등 논의될 것입니다.”

송회장은 또 요즘처럼 사회가 어지러울수록 국민들은 불교를 통해 삶을 되돌아보고 나아가길 찾고자 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때에 불교는 국민들의 뜻을 응징하는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중앙신도회도 그 역할의 일부를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 “복동포에 통일법등 밝힐 터”

백령도에 철탑 세우는 진우스님

“평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최북단 백령도에 철탑을 세워 북한 동포들의 가슴에 통일의 법등을 밝히려 합니다.”

심정의 전설을 간직한 인당수 등 불교지명이 곳곳에 산재한 백령도. 이곳 백령도 가장 높은 곳에 처음으로 철탑을 세우는 해병대 제6여단 군법당 훈룡사 주지 진우스님은 포교 불모지인 백령도에 불심을 심기위해 오늘도 삼시에 불을 쉬지 않는다.

진우스님은 동국대를 졸업하고 해인사 강원에서 수행하다가 지난 7월3일 부임한 이래 열악한 백령도 포교현황에 경악, 기도로서 불심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서원으로 매일 새벽 3시면 도량석으로 어금없이 초소를 돌며 배고픈 위병들에게 김밥과 면을 보시해 왔다.

이런 정성 덕분인지 진우스님은 지난 7월 백령도를 방문한 한국불교중앙협의회(회장 월주스님)로부터 1천만원,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각 종단으로부터 2천만원의 불사금을

김재경 기자

### 자비 남기고 간 ‘아까운’ 죽음

故 장지수씨, 소년가장 등에 전 재산 회향

8세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부산 대덕사에서 살아온 장지수씨(32)가 전 재산 4천5백25만원 중 2천만원은 소년·소녀가장에게, 2천5백25만원은 사찰불사에 써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져 주위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9월30일 금정산 중턱에서 소나무에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된 장씨는 독학으로 방송통신고와 대구보건전문대 치기공과를 나와 치기공사로 일해왔다. 경찰은 장씨가 고독감을 못이겨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자살동기를 조사중이다. <원>

###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이준의 200,000원 △최운영 200,000원 △김동은 100,000원 △최태권 100,000원 △최현숙 90,000원 △최광호 65,000원 △김희수 51,000원 △한진희 50,000원 △이동수 40,000원 △김애란 30,000원 △김금순 30,000원 △김영순 30,000원 △김인교 30,000원 △박상훈 30,000원 △박세철 30,000원 △양순희 30,000원 △채희주 30,000원 △허종범 30,000원 △김윤열 20,000원 △신연수 20,000원 △오의숙 20,000원 외 다른 기금기동부 190,333원 (1일 현재 총 829,186,262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제 5회 한국 고승 초청

## 권 구국 금강경 대설법회 권

세상에는 구하려해도 혹은 얻지 못하는 것이 있으며 세상에는 구하면 반듯이 얻는 것이 있다. 힘써 구하려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이익이고 힘써 구하면 반듯이 얻어지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곧 도(道)이다.

- 일 시 : 1997년 10월 20일 ~ 10월 30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오후1시, 매일 오후 7시~9시
- 장 소 : 중구 부평동 삼보예식장내 삼보불교대학
- 문의처 : 부산삼보불교대학 (051-244-3481 / 253-0681)  
학장 서 보현 합장

강사	약력
서 암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전종정
천 운스님	대한불교조계종 해남대흥사주지
월 운스님	동국대학교 역경원장
무진장스님	조계종 전포교원장
인 환스님	동국대학교 전교수
암 도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이 두스님	조계종 전법주사주지
원 광스님	조계종 삼장부교문서 포교원장
묘 주스님	동국대학교 불대교수
회 암스님	전경련 회장 녹야원 주지

주 최 : 삼보불교대학  
후 원 : 삼보예식장, BBS 불교방송, 대한불교신문  
협 찬 : KBS, MBC, 부산일보, 국제신문

이것이 마음이다.

## 진심직설(真心直說) 강의

「禪과 教를 두루 섭렵하신 無比스님의 강의」

마음, 마음, 마음. 참으로 찾기가 어렵구나. 넓히면 온 우주에 가득하고 좁히면 바늘 끝도 용납하지 못한다. 나는 본래 마음을 구할 뿐 부처를 구하지는 않는다. 내 마음이 없으면 온 우주가 텅 비어 아무 것도 없음을 아나니, 누구든 만약 부처가 되고 싶다면 단지 마음만을 구할지니라.

마음, 마음, 마음, 마음이 곧 부처이니라. (달마대사)

- 진심직설 강의 테입(90분) 18개 : 4만 5천원  
\* 아래의 강의 테입도 계속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 지장경 강의 테입(90분) 16개 : 4만원
- 유마경 강의 테입(90분) 38개 : 7만원
- 임제록 강의 테입(90분) 26개 : 5만원
- 증도가, 신심명 강의 테입(90분) 16개 : 4만원

- 연락처 : 전화 (051)515-7870 (609-340)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123-10번지 경전연구실 문수원
- 온라인 번호 : 부산은행 241-02-001356-2 김지애
- 보급 : 경전연구실 문수원 대증 합장